

# 민생 중심 행정 · 청정환경 보존 · 홍삼 명품화에 집중

**마**미산과 운장산, 구봉산, 용담호를 품은 진안은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고원지대 농촌지역이다. 진안군은 전북도 동부산악권에 위치해 경지율도 높지 않고 기본적인 주거 인프라나 농업현황이 열악했다. 하지만 민선6기 들어 ▲청정 환경 지키기 ▲농산물 판매시스템 구축 ▲미산산 연계 체험·체류형 관광지 조성 ▲진안홍삼의 명품화 등에 집중해 다시 태어나고 있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가 진안군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인구가 적고 고령화율이 높지만 성장 속도가 빠른 곳으로 진안군을 포함했다. 진안은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1.5배 높았다. 농업 소득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 진안을 만들기 위해 달려온 진안군의 3년, 1065일을 되짚어 보는 인터뷰를 마련했다.

### ▲민선6기가 시작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민생 중심의 행정을 펼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지역의 주인은 바로 주민입니다. 따라서 행정은 민생 중심, 즉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말단 지도자인 읍, 면장으로 재직할 때 이 부분에 집중하려 많이 노력했지만 읍, 면장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여 남은 공직생활을 조그 되직하고 군수에 출마했던 것입니다.

지난 3년간 군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고 추진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주민 실생활 밀접 현안 해결 추진  
농촌중심지 활성화 예산 확보  
기초생활 기반 확충 등에 초점  
70세 이상 버스 무료탑승제 호응

### ▲진안은 재정지립도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국가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예산 확보의 중요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진안군은 전북도,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성과는 전북도민의 생명수인 용담호를 지키기 위한 국가예산을 대거 확보한 것입니다. 2016년에 용담호 주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건 236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2017년 5건 51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분야에서 2년에 걸쳐 총 746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올해는 신규 하수도 설치사업 6건 398억원, 인공습지 조성사업 136억원,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393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경우 2016년 정전면 40억5000만원, 마령면 80억원을 확보했고 2017년 주천면 55억원, 진안읍 1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용담과 안전 각각 60억원씩 120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초생활 기반 확충, 소득기반, 지역경관 개선, 주민 역량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진안은 고령화율이 높아 어르신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추진이 중요할 텐데요. 7월 3일부터 100원 택시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안군은 지난 2월 한국지방자치회회가 시행한 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노인복지부문에서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변변한 기업 하나 없으니 재정력 평가에서는 늘 최하위권 신세였는데, 최고의 재정력을 자랑하는 전국의 자치단체를 모두 앞지른 것입니다.

진안군은 70세 이상 버스 무료탑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인 '행복 버스'를 확대 운영해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전화만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진안읍 소재지권에서 100원으로 택시를 탈 수 있는 행복택시를 운영합니다. 행복택시 운영 목적은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진안시장 활성화에 있습니다. 진안군민이면 누구나 100원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안시장 주차장 안에 있는 행복택시 승강장에서 의료원, 터미널, 보건소, 아파트 단지 등 읍소재지권을 30분 간격으로 도는 순환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사업도 공약 중 하나죠?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북에 개마고원이 있다면 남쪽엔 진안고원이 있다고 하죠. 진안은 겨울이 되면 도시에 비해 춥습니다. 추운데도 어르신들은 기름값을 아낀다고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면서 보일러가 터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문제 해결은 주민들의 높은 에너지비용을 낮추면서 기업유치나 각종 투자유치를 위해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사업자를 찾지 못해 터덕거렸던 도시가스 공급 문제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군수에 당선된 후 많은 분들과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았습다. 그 결과 2018년 10월 공급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5

**“**진안읍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건설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3NO운동, 정착 단계로 진입  
제조계 쓰지 않는 우렁이 농법  
농생산 비용 절감에 큰 도움돼  
진안홍삼, 타 지역 제품과 차별화

년 진안군-전북도-한국가스공사-(주)군산도시가스 4자 협약을 이끌어냈고, 올 4월 백운면 평장리 정승재에서 주택관공사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는 도시가스공급체인 군산도시가스와 진안읍 일원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10월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 ▲청정환경 지키기. 어찌 보면 삶의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 아닐까요?

청정환경 보존은 진안의 가장 중요한 미래자원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안군은 친환경 분야를 최고의 지표로 삼고 균형을 운영해 왔습니다.

쓰레기를 안태우고, 안 버리고, 안 묻는 3NO운동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착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3NO운동 추진 전보다 재활용품 수거량은 일곱 배나 증가했습니다. 폐비닐, 농약공병 수거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15%p 줄었습니다.

제조계를 쓰지 않고 우렁이를 통해 논이 잡초를 제거하는 친환경 우렁이농법은 2017년 전체 비 재배면적 1797ha의 93% 수준인 1640ha까지 확대했습니다. 사실상 적합하지 않은 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논농사가 우렁이농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렁이농법은 토양과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농업생산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이앙기, 경운기, 트랙터 등 3종류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시행한 농기계 폐오일 무료 교환사업은 올해 사업비를 두 배 이상 늘려 모든 농기계로 교환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용담호 상류지역은 친환경 제설제로 제설작업을 합니다. 용담호 수질 오염을 막고 가로수 고사방지, 도로 시설물 및 차량 부식을 예방하는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 ▲공약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민선6기 진안군은 한국에너지산업진흥원이 주관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최고

등급(SA)을 받았고 전국 지자체 공약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015년과 2016년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공약사업은 7대 분야 23개 사업인데, 현재까지 14건을 완료했습니다. 2017년 1분기 점검 결과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사업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진안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추진 ▲용담호 상류지역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주말시장 및 진안시장 전통재시장화 ▲야생·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14건을 완료했고 ▲도시가스 공급 ▲농산물 판매시스템 구축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명품화 ▲주민주도 쓰레기 3NO 운동 전 지역 확대 등 9건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전체 공약 중 4가지를 더 완료하고 나머지 5건은 내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진안하면 홍삼이죠. 국내 유일의 홍삼한 방목구도 있고요. 진안홍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은 있나요?

진안홍삼은 지역 브랜드의 한계를 넘어서 품질 관리를 통해서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진안홍삼의 품질향상, 브랜드 강화를 통해 국내 판매 활성화를 물론 해외 수출에 총력을 기울여 농가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안홍삼의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삼 관련 전문 연구기관인 진안홍삼연구소가 품질을 검증하고, 검증된 내용을 군수가 보증하는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120여개 홍삼가공업체 중 48개 업체 56개 품목(인증 품목 9종)이 품질을 인증 받아 공동브랜드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홍삼연구소는 진안홍삼의 우수성 검증은 물론 재배부터 생산, 가공까지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9월에는 진안인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특허청에 등록했습니다. 지난 2010년 진안인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에 이어 진안인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완료해 핵심 산업인 인삼·홍삼 산업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진안산 수매사업 확대와 진안홍삼의 품질 균일화를 위한 진안홍삼 품질인증 협동조합 설립하는 등 타 지역 제품과 차별화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삼재배농가 및 홍삼가공업체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홍삼축제가 이제 진안군 대표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까?

올해는 7개 분야 60여 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9일(목)~22일(일)까지 미산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공연보다는 체험위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삼사우나, 홍삼야외다방, 홍삼놀이터, 홍삼미용관 등 홍삼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거리를 준비하고 축제부스도 98개에서 150여개로 늘려 5강 민족 힐링축제로 만들 생각입니다.

특히, 홍삼을 주제로 한 전국 유일의 축제인 만큼 타 인삼축제의 차별화를 위해 홍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삼 잔뿌리를 제거하는 치미작업을 비롯해서 제조과정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축제기간 행사장 곳곳에는 홍삼축제 해설사를 배치합니다. 해설사들이 진안홍삼과 진안고원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진안=우태만 기자)

